예수이름 부르는 법

(막13:9-13)

9.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10.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11.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 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 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12.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13.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예수이름 부르는 법>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합니다.

예수이름 부르는 법,
예수이름을 부르는 데에 무슨 법이 따로 필요하냐?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업가가 외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잘 끝마치고 이제 졸업식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부모님들이 결혼할 아주 예쁘고 참한 아가씨를 마련하고는, 마련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아들이 나와서 선을 보게 합니다.
선을 잘 보고 둘이서 서로 마음에 들었고, 이제 박사학위 학위 수여식을 위해서 미국으로 가

기 전 날 밤에 친구들이 마지막으로 불러냅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고 나가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날 밤에 회사에서 일이 끝나고 들어오던 참이었습니다.
집 가까이 왔을 때에 그 버스정류장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서있는 걸 보면서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없어요.
그래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친구들이 불러서 나갔다고 아마 내일 떠나니까 서로 아쉬운 정을 나누려고 그런 모양이라고.
근데 아들이 안 들어옵니다, 밤늦도록.
나중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이 사망했다는 겁니다.
그 웅성거리며 버스정류장에 사람들이 모였던 그 현장이 아들이 죽은 현장이었습니다.
술 취한 운전자가 뛰어들면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아들을 치어 죽였습니다.

절망이지요, 절망이라는 말로 표현이 안 돼지요. 삶이 중단돼 버린 겁니다.
겨우겨우 추슬러서 아버지가 미국에 머물고 있던 기숙사로 짐을 챙기러 갔어요.
엄마는 도저히 갈 힘이 없어서 아빠 혼자 갑니다.
짐을 다 챙기다가 책상에서 이것저것 집어넣으면서 한 옆에 있는 성경책을 집어 들게 됩니다.
아들이 보던 성경책이에요.
그 성경책을 폈는데, 성경책 첫 백지 위에 기도문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문이 쓰여 있어요, 아들 글씨로.
아들이 성경책을 책상 머리맡에 두고 읽을 때마다, 그 성경책 표지를 열고 그 기도를 하고 성경책을 읽었던 거예요.
이분이 지금 어는 서울시내 어느 교회의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이 간증하신지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그 간증의 말씀이 저도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그 장로님의 친구 분인데 아직 믿고 있지 않을 때, 그렇게 아들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라는 이름을 귓등으로 들었는데, 그 쓰여 있는 아들이 쓴 기도문에서 ‘예수’라는 두 글자가 그 성경책에서 튀어 올라와서 꿈틀거리면서, 당신의 심장 속으로 파고들어 오더라는 거예요.
두 글자가 살아서 꿈틀거리면서 거기서 떠올라가지고.

그리고 주저앉아 가지고 몇 시간인지를 모르게 울었답니다.
그리고 그 분이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열심히 전도하십니다.
어떻게 전도하나 하면, '난 아들 죽고 예수 받아들이게 됐다, 너도 자식 잃고서야 예수 믿을래?' 이렇게 협박하시면서 전도하신답니다.
그 분만이 할 수 있는 협박전도이지요, 협박전도.

'예수'라는 두 글자가 그 종이 위에서 떠올라서 꿈틀거리면서 심장 속으로 파고들더라.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기억합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틀 뒤, 삼일 뒤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고, 부활하시고 사십일 만에 승천하시면 이제 이 지상에는 예수라는 한 인간이 사셨던 흔적이라고는, 예수라는 이름 밖에는 남겨지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 하나만 남겼고 떠나시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기독교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 이름, 그 두 글자로 된 이름.

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기독교가 생겨났는데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뭐에요?
예수이름 부른 거, 예수이름 부르기,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예수이름 부르기가 기독교 신앙인데, 왜 예수이름 부르기에 법이 있느냐 이겁니다.
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많아요.
스님들도 예수님을 불러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해요.
그리고 역사가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말해요.
그리고 기독교에 적대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법을 정확히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신앙인이냐 아니냐를 가름한다는 얘깁니다.
문자로서의 예수라는 두 음절에 그 문자자체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 두 문자를 부르는 법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라는 두 음절의 문자를 부를 때에, 정화수 떠놓고 정성드릴 때, '천지신령

님이시여,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님이시여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역사가들이 아브라함 링컨이나 알렉산더나 세종대왕을 언급하듯이 그렇게 언급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부르는 법을 모르고 부르면, 그냥 우상숭배 하는 것이고 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식으로 언급하는 것이고, 기독교에 적대자들이 언급하는 그런 식으로 언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이름을 부르며 살아도 아무도 우리를 미워하지 않아요.
조금은 이상한 것 같아요.
아무리 종교의 자유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주님께서 로마정부가 너희를 로마 황제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핍박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모든 세대에 걸쳐서 일어날 일을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아무도 우리를 미워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미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가 법으로 정해서 있건 없건 상관없는 어떤 미움 같은데, 왜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을까?
유대인들도 박해를 하고 세상의 권력자들도 우리를 박해해서 자기들 앞에 우리를 세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가족들까지도 미워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법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예수님 이름 불러서 예수님 오게 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 부를 때에 포인트는 예수님 이름 부르며 우리가 가기입니다.
이게 바로 포인트라는 거예요.

애인들끼리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자기야 지금 어디 있어? 나는 종로2가 종로서적에 있는데 자기가 이리로 올래?' 이렇게 이름을 불러서 오게 하는 이름 부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자기야 지금 어디 있어? 아~ 광화문에 있어? 그럼 내가 그 이 순신 장군동상 있는데 그 근처로 갈께!' 이름 불러서 가기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는 법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 이름 부르며 내가 가기입니다.
예수님 이름 부르며 예수님을 불러오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은 지금 현실적으로 내게 주어져있는 상황에 묶여 있으면서, 그 상황에 묶여있는 상태에서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 오세요, 와서 좀 도와주시고 내 형편을 알아주시고, 예수님 하여튼 이리로 오세요!'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는 것은, 정화수 떠 놓고 산신령 천지신령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얘기에요.
부르는 법이 천지신령과 산신령을 부르는 것과 똑같다는 얘깁니다.
불상 앞에서 '부처님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는 것과 똑같다는 얘깁니다.
예수님 이름을 부를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공허한 허공에 대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주문 외우듯이 부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부를 때는, 언제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로 우리가 마음이 갑니다.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법이에요.
자, 내가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부를 거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묶여있는 상태에서 '예수님 오셔서 어려움을 도와주세요!' 해서는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법이 틀린 겁니다.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예수님 이름 기억하기, 예수님 이름 부르기, 예수님 이름 전하기.
이게 기독교의 전부 다에요, 전부 다에요.

그러므로 예수님 이름 부를 때 법이 바로 돼야 되는데,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로 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게 급한 상황이든지 간에 무조건 그 상황을 떠나서 십자가의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0.001초 만에도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 부를 때 나타나야 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 마음이 가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내가 저렇게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세종대왕, 하면은 우리가 훈민정음 창제를 기억합니다.
아브라함 링컨, 하면은 우리가 노예해방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명박 대통령, 하면은 4대강 개발, 운하 이런 게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십자가의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고백이 따라가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죽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죽습니다.
세상에 대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합니다, 똑같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승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결국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내가 함께 죽은 것이다'라는 고백을 통해 부르면서 기어코는 승천하신 주님과 함께 따라가서 하늘에까지 가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예수이름 부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늘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지금 이 세상을 내려다보고 계시는데, 이 세상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옆에 있는 나를 찾아내는 것, 이게 예수님 부르는 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면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한테까지 가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산신령을 부른 법대로 예수님을 부르는 거니까 예수님이 찾아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5절에서 6절 이렇게 쓰여 있지 않아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내용.
‘허물로 죽은’ 내가 내 허물을 보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처럼 죽어야 마땅하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내가 죽은 것이다’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제대로 불러지기 시작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님,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께로 내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부를 때에 박해와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신비로운 예수님 이름 부르기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신성모독이 됩니다.
왜? 내가 지금 하늘의 보좌우편에 계신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해 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권력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권력자와 임금들 앞에 끌려 갈 텐데 그건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한다.
증거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 권력자와 왕들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정해 놓은 좋다고 하는 모든 가치를 일등으로 갖고 있는 자들이 세상 임금들이고 세상 권력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증거가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을 다 갖고 있는 그 왕들 앞에 이 모~든 것이 새발에 피밖에 안 될 만큼 더 좋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증거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왕으로서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모든 가치들을 산더미처럼 쌓아 놔도, 그것이 무효화 될 수밖에 없을 만큼 좋은 세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증거를 제시하라는 겁니다.

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이 계신 하늘에까지 마음이 따라 올라가 버렸고, 나는 지금 하늘의 주님과 함께 있다고 믿는 것,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과 내 영이 지금 주님과 함께 하늘에 있다고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 이니까, 예수이름 부르는 거니까.
그렇게 부를 때에 왕 앞에 서서 그런 세상이 있다는 것을 증거 하는 겁니다.

어저께 우리가 자궁수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세상은 빠져나가야 하는 자궁과 같은 것이에요.
근데 세상 임금들과 권력자들이라는 건 누구냐 하면, 이 세상에 안주하려는 계획에 성공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고, 거기가 편안하니까 끝까지 거기에 머물려고 하는 태아의 꿈을 이룬 자들이라는 거예요, 태아의 야심을.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은 채로 10개월 12개월이 돼가지고, 머리는 장발이 되고 손톱은 막 길어지고…
그러니까 장발의 태아들이 바로 세상의 권력자들이고,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얘깁니다.
근데 이 사람들 앞에 증거가 되라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자궁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 것도 아닌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증명할 만한 증거를 드러내라는 얘기에요.
그것이 예수이름 때문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천국이라는 것이.
왜? 예수이름 부르기를 제대로 하면,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천국에 가 있다고 하는 것이, 믿어야 되는 것이, 이게 믿음이니까.

그럼 이렇게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자, '너희가 끌려갈 때에 무슨 말을 할지 미리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 하실 것이다.
이게 성령 받는 비결, 예수이름을 부르면 성령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이름을 어떻게 부릅니까?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것으로 인정하면서 장사 지내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의 그 경로를 그대로 따라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돈 없고, 병 걸리고 자식도 문제 있고, 아니면 거꾸로 세상에 형통하고 일이 잘되고 하는 이 상황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늘에 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주님과 함께 있다, 이렇게 믿고 하늘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그러니까, 예수이름 하나 잘 부르면 되는 거예요.
한번 그걸 해 보세요.
예수이름 부를 때, 아! 순간적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세종대왕하면 훈민정음 생각나듯이, 예수님, 하면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 '내가 죽은 거다, 내가 죽어서 장사 지내서 이 세상에 대해 내가 죽은 거다 이제, 끝났다. 지금 처한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모든 사람에 대해 내가 죽었다, 가족들에 대해 다 죽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미워할지도 모르지요.
그렇게 죽은 상태가 되어서, 부활해서 승천하신 주님을 꼭 붙잡습니다.
이게 예수이름 부르는 거예요.
승천하신 주님을 붙잡고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늘로 내 마음이 올라가는 겁니다.
같이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이름 부르기에요.

계~속 이 지구 위에서 내게 주어지는 상황에 마음이 붙들려 있으면서, '예수님 오셔서 이걸 해결해 주세요1' 이거는 천지신령 산신령 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건 믿음도 아니고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이름 부른다는 것은 하늘까지 내가 올라간다, 이 세상을 빠져 나와서, 이 세상에 대해서 죽어서 하늘까지 올라간다는 각오가 없으면, 예수이름 부르지 마세요.
그렇게 예수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성령께서 오신다는 얘기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성령이 감싸시면서 하늘을 느끼게 해 주시고, 성령께서 이 세상의 삶에서 말을 내 대신 한다는 것은, 말이라는 것은 인격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인격을 대표하는 현상이 말이에요.
말 속에는 의견이 들어있고 그 인격의 뜻함이 들어있기 때문에, 말한다는 이 한마디 말이, 인격을 총체적으로 대표한다는 말이거든요.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대표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얘깁니다.
아! 신비로운 얘기에요.

대단한 거 할 거 없고, 어려운 책 읽으려 하지 마세요.
예수이름 부르기, 예수이름 부르면 됩니다.

단, 예수이름 부를 때 내가,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날 생각, 떠날 각오를 하고 예수이름을 불러야 할 것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 그 하늘까지 내가 쫓아 올라가고 이제 내 마음은 하늘에 있다, 이 땅에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에요.
그러면 아마 핍박도 주어질걸요? 미워도 할걸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모든 가치를 무효화 시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니까요, 내 앞에서는.
그 세상에서 일등 했는데, 그 일등 한 게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니까 밉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미움을 받게 되는 속 내용이라는 겁니다.
미움을 받을 때 기뻐해야지요.
하늘을 내 것으로 삼으니까 앞에서 이 세상의 모든 가치는 빛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가치에 목매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얘기죠.

예수이름 부르는 법! 바로 행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지금 이 지구 위에서 주어진 상황이 아무리 급하고 절실해도, 일단 예수이름을 부를 거라면, 내 마음이 이 상황을 빠져 나와서 세상에 대해 죽고, 하늘까지 올라갈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까지 내 마음이 각오가 돼서 예수이름 부르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늘을 알게 하시고, 이 세상은 내 인격을 대신해서 살아가 주시는 복된 삶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경험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